

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

해양을 따라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린다

● Contents



<input type="checkbox"/> UASC 18,000TEU급 컨테이너 선박 발주 가능성	2
<input type="checkbox"/> 터키 일드림 그룹, 항만자산 매각계획 발표	3
<input type="checkbox"/> 이란, 항만 개발 대규모 투자 추진	4
<input type="checkbox"/> 인도, 비진잠항 컨테이너 터미널 확장 프로젝트 진행	5

□ UASC 18,000TEU급 컨테이너 선박 발주 가능성

- 최근 UASC(United Arab Shipping Company)는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, 전 세계 여러 조선소와 18,000TEU급 선박 발주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짐
- 만약 UASC가 18,000TEU급 선박을 발주하면, Maersk사의 Triple-E Class 이후 18,000TEU급 선박을 보유하는 두 번째 선사가 됨
 - 그러나 UASC는 Maersk가 선택한 Twin-propulsion 시스템이 아닌 Single-engine 형태의 전혀 다른 선박의 발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
- 그러나 아직까지 공식적인 형태로 진행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, 이는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중반에 발주한 13,500TEU급 선박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발주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임
 - 이는 UASC는 13,500TEU급 9척을 약 170백만 달러로 발주하였으나, 최근 Evergreen은 비슷한 규모의 선박을 UASC가 발주한 선가의 1/3수준으로 발주하였기 때문임
 - 또한 최근 Seaspan은 Yang Ming에 용선할 목적으로 14,100TEU급 선박을 적당 110백만 달러로 발주하였음
- 이와 같은 선박 발주가 2013년부터 점차 재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, 브로커들은 경기회복을 저해하는 요소가 아직까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선 시장 회복에 대한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음
 - 그 이유는 전통적인 KG 자금의 부재와 대부분의 글로벌 선사들은 현재보다 더 큰 규모의 선박이 아직까지는 필요 없기 때문임
 - 또한 UASC를 포함하여 2009년 금융위기 이전 선박발주 붐 시기를 놓친 선사들의 경우 선박 인도시기를 늦추어 최근에 선박을 인도했기 때문임
 - UASC의 경우에도 13,500TEU급 9척 중 마지막 선박을 2012년에 인도받았는데, 실제로는 2011년 말까지 모든 선박을 항로에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
- UASC는 18,000TEU급 선박의 발주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동일한 선박에 관심이 큰 China shipping과의 새로운 선복공유 계약 체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
- UASC는 세계 20위의 글로벌 선사로 24척, 270,000TEU의 선복량을 보유하고 있으며, 현재 운영 중인 최대선박은 13,500TEU임

자료 : www.lloydslist.com, 2013.1.7

김근섭 전문연구원 (☎ 02-2105-2846, gskim@kmi.re.kr)

□ 터키 일드림 그룹, 항만자산 매각계획 발표

- 터키의 주요 산업지주회사인 일드림(Yildirim) 그룹¹⁾은 총 20억 달러에 달하는 항만자산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각한다는 계획을 발표
 - 단, 로버트 유크셀 일드림(Robert Yuksel Yildirim) 일드림 회장은 이후 그룹의 항만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바로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여 자산을 매각할 것이라고 밝힘
 - 또 추후 자산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각하기 전에 추가적으로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항만들의 지분을 획득하여 자산규모를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
 - 현재 일드림 그룹이 보유한 항만자산은 5개 항만²⁾으로 연간 550만 TEU를 처리하고 있으며 향후 5년 안에 750만 TEU를 처리할 것으로 기대됨
- 일드림 그룹은 2012년 12월에 겐항과 로타항 2개 항만에 대한 신규투자를 실시
 - 겐릭 겐항의 지분 32.58%(기존 54%)를 추가로 매입하여 지분을 86%까지 확대함
 - 마르마라 섬에 위치한 겐항은 터키 최초의 민영항만으로 컨테이너와 Ro-Ro 터미널, 그리고 창고를 보유하고 있음
 - 또한 로타항의 지분을 이전 운영사인 코카엘리(Kocaeli)사로부터 100% 획득함
 - 로타항은 주로 액체화물을 취급하는 항만으로 총 연장 880m, 6개 선석, 23m의 수심을 가지고 있으며 파나막스 및 더 큰 규모의 선박이 접안 가능함
 - 일드림 그룹은 로타항을 액체화물에 있어 관련 산업 및 지역을 선도하는 항만으로 변화시키고자 향후 총 200만 달러를 항만 개조 및 신규설비 도입에 투자할 계획임

< Gemport 조감도 >



< Rotaport 조감도 >



자료 : www.portfinanceinternational.com, 2013.1.2/ www.dredgingtoday.com, 2013.1.2

김홍매 전문연구원 (☎ 02-2105-2828, hisgrace@kmi.re.kr)

1) 일드림 그룹은 1963년 터키에서 설립된 회사로 주요 사업 분야는 자원과 항만 개발 및 운영, 부동산 개발임

2) 일포트-게브제(Yilport Gebze), 일보트-겐릭(Yilport Gemlik), 말타 자유항(Malta Freeport), 로타항(RotaPort), 겐항(Gemport)

□ 이란, 항만 개발 대규모 투자 추진

- 이란은 국가 항만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4천억 달러 상당의 투자계획을 발표
 - 금번 투자는 이란의 민간부문 투자를 통해 이루질 예정이며, 특별경제구역(Special Economic Zone), 특별산업구역(Special Industrial Zone)¹⁾, 항만 개발이 포함
 - 도로·지방개발부(Roads and Rural Development Ministry) 장관에 따르면, 인프라 시설, 부두, 방파제 등의 건설을 계획 중이며, 아울러 항만 통관의 적시성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할 계획임
 - 또한 현재 아미르바드항(Amirabad Port)내에 사일로, 오일 정제 공장 및 제지 제조회사를 건설 중이며, 최근 노샤르항(Noushahr Port)의 진입 도로 개발이 승인되어 추진 중임
 - 이를 통해 노샤르항이 위치한 북부지역은 물류항만 도시로 거듭나고 인근 지역과의 접근성이 증대될 예정임
 - 본 항만 개발을 위한 토지가 현재 부족한 실정이나 14 헥타르 규모의 준설을 통해 추가적인 토지를 확보할 계획임
- 금번 투자를 통해 항만의 처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일자리 창출 및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전망
- 한편 이란 전체 항만 물동량은 연간 화물 처리능력이 1억 7,200만 톤이며, 2015년까지 2억 1천만 톤을 처리하게 될 것으로 추정

< 아미르바드항 및 노샤르항 위치 >



자료 : www.dredgingtoday.com, 2013.1.3

< 아미르바드항 전경 >



황현주 연구원 (☎ 02-2105-2897, julya7@kmi.re.kr)

1) 2013년 3월까지 215억 달러 규모의 석유산업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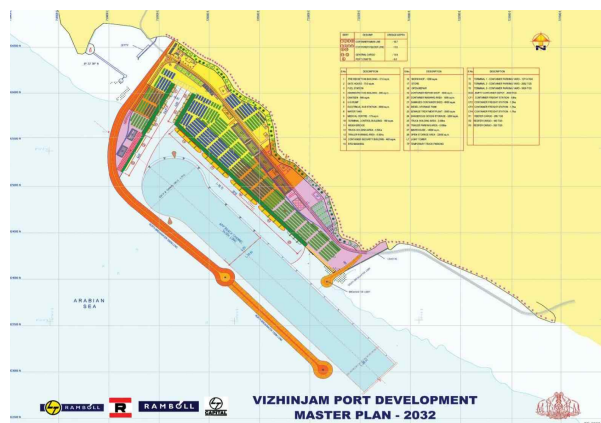
□ 인도, 비진잠항 컨테이너 터미널 확장 프로젝트 진행

- 비진잠항(Vizhinjam Port)은 인도의 최대 컨테이너 환적항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컨테이너 선석 확장을 준비함
 - 선석 확장으로 최대 18,020TEU까지 처리 할 수 있으며, 경쟁 항만인 Colombo항과 Dubai항보다 대형선박 유치에 유리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
 - 아울러 250m 길이의 오일 벙커링 설비시설과 850m 선석길이의 어항 확장도 계획 중
- 비진잠항은 Green Port를 목표로 하고 있기에 EIA(Environment Impact Assessment)의 환경평가와 IFC(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) 세부계획이 발표되면 주(州) 환경오염관리 위원회에 심의를 받을 예정
 - 비진잠항은 인도의 첫 Green Port로서 탄소배출을 최소화 하기 위해 디자인됨
- 본 항만 컨테이너 터미널의 선석을 총 2,000m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3단계로 나누어 건설을 진행
 - 총 건설비용은 4,010crore가 소요되고 인입철도, 도로연결 등의 비용도 포함됨

< 비진잠항 위치 >



< 비진잠항 컨테이너 터미널 레이아웃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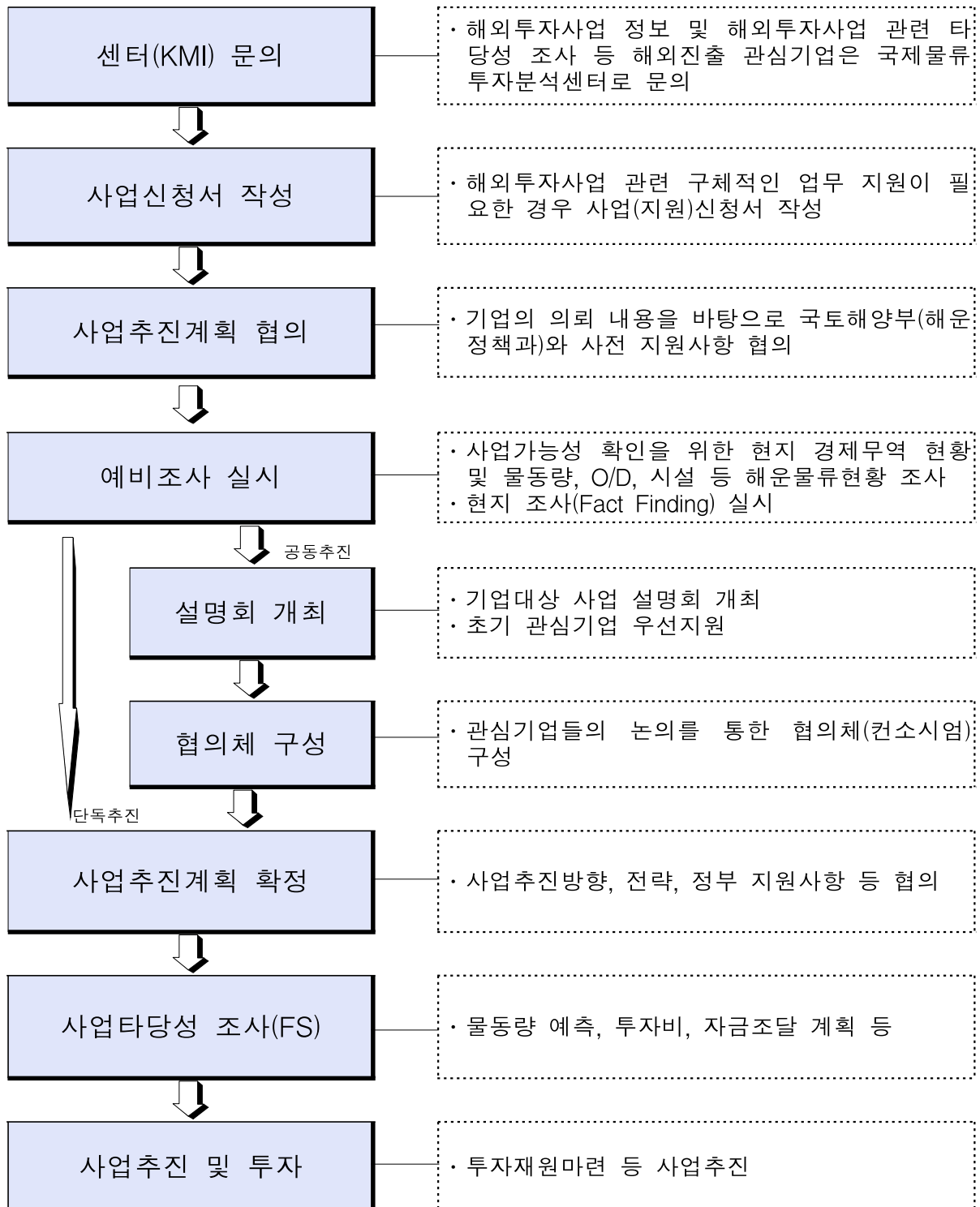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vizhinjamport.in, 2013.1.8

자료 : www.hellenicshippingnews.com, 2013.1.8

전혜경 연구원 (☎ 02-2105-2982, saei@kmi.re.kr)

[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]



* 기초타당성 조사(실비 부담), 정부간 협상,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